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인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계웅

믿음의 반석 주님의 교회 교회설립 55주년 기념주일



복음으로 화합하는 추석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추석연휴는 주일 전후로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의(골 2:8)하시고, 귀성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근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상신을 숭배하는 제사에는 절대로 참여하지 마시고(요일 5:21)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담대함과 지혜로움을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불필요한 오락을 삼가시고 복음으로 화합하는 명절이 되도록 매 순간 깨어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고후 2:15)

*추석기증예배 모본은 본지 4면 참조

은총! 지난 55년간 충현교회의 발자취를 뒤돌아볼 때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지금의 충현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렘 1:22)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된 교회는 “충현”이라는 이름보다는 믿음의 반석에 기초한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에 더욱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골 1:24) 앞으로도 변함없이 충현교회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복음의 불모지를 향한 힘찬 전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실천을 기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요일 5:5) 사랑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기에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감사의 삶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9:15)

성령은 감사로 넘칩니다! 신구약을 살펴보면 참 신자들은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솔 15:2 ; 행 16:25)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늘 마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항상 불평하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사해야 할 아주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라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감사는 물질이나 명예, 또는 다른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고전 15:57) 예수님의 부활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고전 15:51-53) 부활 시 일어나는 변화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스펀반을 죽이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전히 그를 만나 주셨고 결국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행 2:8-9) 자신에 대해 자랑하지 말고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감사하라

참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다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에 세 힘을 복음자들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모 교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빌 1:3) 또한 바울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롬 1:8) 참 그리스도인은 다른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 13:34-35)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곁에 앉아 있는 사람들로 인해 감사하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이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서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참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18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군가 여러분에게 돌을 던지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모욕을 줄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잃어버리고 파산 상태가 되어 정말로 곤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변함없이 감사해야 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여러분을 본향으로 데려가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감사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심령이 문제들에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둡고, 낙심되고, 격정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라도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사람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물리치고, 놀라운 기쁨을 가져다 주며, 온갖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김성관 위임목사

YOUR FAITH

*⁽²⁵⁾A woman who had had a hemorrhage for twelve years, ⁽²⁶⁾and had endured much at the hands of many physicians, and had spent all that she had and was not helped at all, but rather had grown worse
⁽³³⁾But the woman fearing and trembling, aware of what had happened to her, came and fell down before Him and told Him the whole truth. ⁽³⁴⁾And He said to her, "Daughter,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go in peace and be healed of your affliction."^(Mark 5:25~34)*

Do you believe Jesus? Do you believe God? If you are a true Christian, then where is the evidence of your faith? The woman in today's Bible passage was very sick and very rich. She spent all her money visiting doctors and hoping for recovery, but instead of getting better she grew worse. This desperate woman explored many avenues of medicine but nothing worked. She needed help. She was dying. In faith, she reached out to Jesus. Her action and Jesus' reaction give proof to the power of faith. Let's look at this woman with spiritual eyes and see the amazing grace of God at work.

This woman's sickness was of long duration and hopeless. The Bible tells us that she was bleeding for twelve years, "A woman who had a hemorrhage for twelve years." (v. 25) In the Jewish religion, a woman who was bleeding out was not allowed to go to temple and worship, nor sleep with her husband. The Old Testament described this situation as a punishment from God. This sickness affected her whole life. She was isolated, weak and had spent everything she had to try and get better. Her blood situation is the same as our sin situation. Sin is rooted in every person's heart and mind, just like this disease was rooted in the woman's body. No matter how much money, time, or sacrifice we give to get rid of sin, in the end we lose because we die. Romans 6:12 says, "Therefore do not let sin reign in your mortal body so that you obey its lusts."

This woman's case was hopeless. The Bible tells us that she "endured much at the hands of many physicians, and had spent all that she had and was not helped at all, but rather had grown worse." (v. 26) She had plenty of advice, but no real help. Have you ever heard of a hopeless case? The wonderful news is that this woman heard about Jesus, "after hearing about Jesus, she came up in the crowd behind Him and touched His cloak." (v. 27) You and I have the advantage of reading about Jesus every day, but this woman only heard about Jesus. She heard and then acted upon what she heard. Just like the little Jewish slave girl who had heard about the prophet Elijah and shared her faith with her mistress to help the leper Naaman(2Kgs. 5:1~4), and Andrew who had heard about the Messiah from John and then shared his faith with his brother Simon(Jn. 1:41~42), and Philip who shared his faith in Jesus with Nathanael(Jn. 1:45) Every time you bring even a little something to God, a big something can happen. A lot of people need to hear that Jesus is alive. You've heard it, but where is your faith? Jesus is able to do "exceeding abundantly beyond all that we ask or think." (Eph. 3:20) He is no different today than He was more than 2,000 years ago,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Heb. 13:8) Just as He was there for this hopeless bleeding woman, He is still here for you and me.

Like the bleeding woman, the multitudes still try to dissuade and deter you from reaching Jesus. I'm sure many people in the crowd told this woman to go away. If her pride bothered her then she probably would never have reached Jesus. She was hindered but not halted. Difficulties did not discourage or disturb her because of her faith and desire. She persevered and pressed through the crowd to get behind Him, and even

touched Him. Zaccheus had the same desire. He wanted to see Jesus but couldn't because of the crowds, so he climbed up a tree and when Jesus got to that tree He called Zaccheus down to be with Him.(Lk. 19:3~6) Do you have this kind of faith and desire?

The bleeding woman touched the garment of Jesus. Oh my goodness. This woman actually thought, "If I just touch His garments, I will get well." (v. 28) This was her faith. Hebrews 4:15 reminds us, "For we do not have a high priest who cannot sympathize with our weaknesses, but One who has been tempted in all things as we are, yet without sin." This woman did not approach Jesus with her past history and experiences, nor with tears and excuses. She didn't speak a word before touching Jesus; she just showed Him her faith. This action caused an immediate reaction. A miracle took place! As soon as she touched Jesus' garment the bleeding woman was healed, "Immediately the flow of her blood was dried up; and she felt in her body that she was healed of her affliction." (v. 29) The royal official, who believed Jesus when He said, "Go; your son lives" (Jn. 4:50), realized when he got home that his son was healed the moment Jesus said so. The lame man from birth was also healed immediately when Peter called on the name of Jesus(Acts 3:7), but the Bible also mentions slower healings, like when Jesus healed the blind man in Bethsaida.(Mk. 8:22~26) All the healings involved faith. Where is your faith?

Jesus immediately knew upon being touched that the bleeding woman was healed, "And He looked around to see the woman who had done this." (v. 32) Jesus turned around because He wanted to see this woman of faith. He wants to see your faith too! He's not interested in anything else, just your faith. No one else knew about the little touch, but just a little faith is what Jesus wants to see. This verse really hits me hard. Even though everybody was against Jesus, including His disciples, who told him that He was basically crazy for asking them to find out who touched Him when there were people all around Him (vv. 30~31), still wanted to see this one little woman with pure faith.

My dear friend, I hope as your heart takes in this sermon that your pride is not working. Please let Jesus see your faith. Don't come to Him with excuses or exaggerations. He just wants to see your real faith. He is the Lord and Savior. The bleeding woman's faith made her whole, "Daughter,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go in peace and be healed of your affliction." (v. 34) This woman was probably older than Jesus, but Jesus still called her "Daughter". She needed Jesus, and through her faith she got Him. Real faith moves mountains, closes the lion's mouth, quenches violent fire, opens jail doors, and can even raise the dead. Where is your faith? Jesus loves this church and He loves you. I've been preaching in this church for more than eleven years now that Jesus is the answer, He is real. You have heard nothing but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cross for your sin from this pulpit for eleven years! Do you believe it? Are you still looking for something else? Is fame, fortune, and fancy still your desire? I'm asking you as sincerely and as deeply as I can, where is your faith? 🙏

네 믿음

(25)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26)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

(33)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주니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이다

(마가복음 5:25~34)



김성남 목사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려면 그 믿음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엄청난 부자였지만 중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느라 가진 재산을 모두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병세가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긴만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여인은 세상의 온갖 방법을 동원해 모든 치료를 받아보았지만 허사였습니다. 여인은 절실히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인의 행동과 예수님의 반응은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영의 눈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여인은 오랫동안 병에 시달렸다

여인의 병은 너무나 오래되었고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성경은 여인이 열두 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25절) 유대교에서는 피를 흘리는 여인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남편과 잠자리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구역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여겼습니다. 혈루병은 여인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녀는 격리되었고 점점 더 쇠약해져갔습니다.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의 상황은 죄로 물든 우리의 상황과 동일합니다. 죄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정신에 깊게 뿌리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혈루병이 여인의 온몸에 퍼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 아무리 많은 돈과 시간, 희생을 바친다고 해도 모두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죽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12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인은 절망하였다

여인의 상황은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성경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26절) 그녀는 많은 조원을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 들어 보셨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이 이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7절)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다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녀는 소문을 듣고 자신이 들은 것을 믿음으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어린 유대 여종이 나뭇에 걸린 나뭇꾼을 돕기 위해 여주인에게 자신의 믿음을 나누고(왕하 5:1~4),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은 후, 빌립이 나다냐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했던 것과 같습니다. (요 1:45)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극히 작은 것을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소식을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행 3:20) 예수님은 2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 13:8) 이 절망적인 혈루병 여인을 위해 그곳에 계셨던 것처럼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곳에 계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였다

혈루병 여인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제지합니다. 분명히 무리 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저러 가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망설였다는 아마 여인은 결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인은

제지를 당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그녀를 낙심시키지거나 막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여인의 믿음과 소망은 간절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군중 속을 파고 들어갔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갔습니다. 사각오목에도 동일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군중들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뿔나방에 올라갔고 그 나무 아래를 지나가시던 예수님은 사각오목에 내려오라고 하시며 그의 집에 유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눅 19:3~6)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과 그 믿음을 실천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28절) 이것이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15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여인은 자신의 과거와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눈물과 번민을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지기 전에 한 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보였을 뿐입니다. 이 행위는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기적이 일어났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여인의 혈루병은 치유되었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29절)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요 4:50)라고 말씀할 때 그것을 믿었던 왕의 신하의 집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아들이 나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뭇꾼부터 몇 걸었던 사람 역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했을 때 즉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행 3:7) 그러나 성경은 또한 예수님께서 벳새다에서 눈 먼 자를 고치셨을 때처럼 더디 늦는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막 8:22~26) 모든 치유는 믿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찾으셨다

예수님은 누군가 자신의 옷을 만졌고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즉시 알아차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고 돌려 보시니” (32절) 예수님은 이 믿음의 여인을 보시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믿음 외에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살짝 만진 것을 눈치 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지극히 작은 이 믿음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저는 정말로 세계 일어났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 심지어 제자들마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미는 것을 보면서 누가 예수님을 만졌는지 찾고자 하시더니 제 정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30~31절)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순전한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교를 들며 여러분의 자존심이 다시 살아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주님께 변방이나 파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단지 여러분의 진실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었으며 구원자이십니다. 혈루병 여인의 믿음은 그녀를 온전하게 하였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이다” (34절)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 “딸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필요했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참 믿음은 산을 옮기며, 사자의 입을 막고, 극렬한 불을 끄며, 옥문을 열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천군천사를 사방하시고 여러분을 사방하십니다. 저는 11년 동안 이 강단에서 “예수님만이 진짜이며 대답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11년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의 죄를 대속한 십자가만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예수님께! 아직도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걸습니까? 여전히 부, 명예, 권력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

가족에 대한 믿음의 간구

(마태복음 15:21~28)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마 15:21) 그곳은 바깥쪽과 아세라 우상으로 가득찬 도시로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셨다. 이 여인은 자신의 가족이 안고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 그녀는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간구를 하였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두로와 시돈보다 훨씬 더 험악한 도시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는 무엇인가?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을 위한 간구로만 가득하지 않은가? 유대인들에게 천대를 받으며 소외당했던 가나안 여인이 드리는 가족에 대한 믿음의 간구를 마음에 새기자.

가장 귀한 자식이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문제가 아닌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 어떻게 보면 갑주과 싶은 일이었음에도 그녀는 자신의 딸이 처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외쳤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마 15:22) 이 여인의 딸은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것이었다.(막 7:25) 이 문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진실로 믿었기에 예수님께 나아왔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한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학업, 직장, 건강 등 이 땅에 속한 것들에 매여 주님께 간구하고 있지 않은가? 자녀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십자가와 상관없이 사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나안 여인의 딸을 괴롭혔던 악한 사탄은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을 가장 큰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보혈의 능력만이 악한 사탄의 사슬을 끊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 자유를 줄 것이다.

과연 이 여인의 믿음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나는 이

주석가정에배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 찬 송		559장		다 같이
◆ 말씀봉독		마태복음 15:21~28		인 도 자
◆ 말씀선조		가족에 대한 믿음의 간구		인 도 자
◆ 통상기도				다 같이
◆ 찬 송		439장		다 같이
◆ 주기도문				다 같이

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라”(마 15:24) 하였다. 이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의 냉랭한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예수님께 더욱 매달렸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마 15:25) “주여 옴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를 먹나이다”(마 15:27) 가나안 여인은 겸손한 믿음, 갈 곳을 알고 있었던 믿음,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였다. 이 믿음이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다. 이 믿음으로만 주님의 교회는 세워질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다. 저자처럼 작은 믿음이다.(마 17:20) 땅에 떨어지 죽는 한 밀알같은 믿음이다.(요 12:24) 그러므로 자신의 업적, 공로에 기초한 믿음이 아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마 16:16)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올바른 믿음의 간구가 있게 하소서”

여인에게 대담을 주신다

간절한 믿음으로 간구했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대담하신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마 15:28) 이 여인의 간구는 교회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기도도 아니었다. 단순히 가족을 위한 기도였다. 이 기도에도 예수님은 응답하여 주셨다. 이제 민족의 멸절인 추척이다. 이 날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가족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자. 믿음의 기도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요일 5:4~5)

가나안 여인의 가족에게 일어난 기적이 우리의 가족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오늘 말씀이 이것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자. 세상적인 행동함으로 넘치는 가족이 아니라 가족의 영혼이 보혈의 은수로 살아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자. 그 다음 일은 당신의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내 믿음에 십자가가 있는가? 내 믿음에 자기부인이 있는가? 를 살펴라. 이제 곧 온 땅에 있을 성령의 역사를 볼 것이다. 가족에 대한 믿음의 간구로 거듭난 은총의 자녀들을 통해서 온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아멘.

김성관 위임목사

마가복음 강해 35

* 매주 월요일새벽기도회(새벽 4:45)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다

(6:45~52)

오병이어의 기적과 마찬가지로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전적으로 믿지 않는다. 이성과 과학의 범주 안에서 다양한 해석을 내놓을 뿐이다. 일각에서는 예수님이 깊은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이 아니라 갈릴래아의 얕은 물가를 걸으셨다고 주장하기도한다. 또한 번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본 것이 아니라 눈의 착각이다. 한마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실제 행하셨고, 성령이 기록하는 무서움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고 있는가? 아니면 의심하고 있는가? 절대무오한 성령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에 의심 여지없이 예수님은 분명히 바다 위를 걸으셨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 벳새다로 보내신 뒤 기도를 하셨습니다.(막 6:45~46)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참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 한발깡이 되었다. 바람은 세차게 불었고 제자들은 험하게 잔파 벳새다로 가고 있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과 사투하는 제자를 걸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던 것이다.(막 6:48) 이 모습에 제자들은 매우 놀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며 유령인 줄 알았다.(막 6:49 : 마 14:25~26 : 요 6:19) 이러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풍운을 만났던 상황과 다르다.(막 4:37~38) 이집의 상황과는 달리 이번에는 예수님이 제자를 걸을 그날 지나가려고 하셨다. 구약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종종 있었다.(출 33:22, 34:6 : 왕상 19:11)

갑작스런 예수님의 출현에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안식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막 6:50) 특히 “네니”(It is I)라는 구절은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말씀 중에 자주 사용하시던 표현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출 3:14) “저울에 다 나옴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나니라”(사 41:4) “내가 그인을 줄 깨닫게 하려 하리라”

(사 43:10) 하나님은 자존하시듯 예수님도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다.(막 1:10) 따라서 바다 위를 걸으신 것과 같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지극히 자연스럽다.(요 9:8) 그런데 당시의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과 행동은 신성모독으로 격분하였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다.(요 8:54~59)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당시의 목회자 말씀과 기도,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점이다.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바로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서 자신들이 탄 배 위로 올라오신 예수님을 보고 놀랐을 뿐이었다.(막 6:51) 그들의 마음은 세상의 것들로 둔화여졌기에 영의 일을 분별하거나 깨닫지 못했다.(막 6:52, 4:10:13) 예수님은 연속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확증할만한 신적 권능을 보이셨다. 또한 예수님은 연속해서 인류 구원을 위한 고난,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다.(막 8:31, 9:30~31, 10:33~34)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은 달랐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오른쪽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막 10:37) 지금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하지 않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의 문제를 질문을 통해서 지적하셨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막 4:40)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질타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부활을 경험한 사르마 파부의 아들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기쁨과 은사로 충만했을 것이다.(왕상 17:22) 그런데 우리는 이에 비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보증을 받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이 은총의 근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매년 우리에게 어떤 또는 멸시를 받고 있다. 어찌된 일인가?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믿자.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실패와 경험을 참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십자가를 지자.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믿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나니 주님의 하나님이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자. 아멘.

주님이 열어 주신 선교의 문

시작 첫날 우리가 차로 이동하는데 이상한 차 한 대가 우리를 쫓아왔다. 경한적인 것 같았다. 우리가 서면 서고, 우리가 가면 쫓아오고, 일부러 물건을 사려고 가게에 들어가면 그들 일행 중 한 사람도 가게로 들어왔다. 한시도 여유를 주지 않던 경찰은 어느 검문소에 이르자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다. 운전 기사와 말도 통하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했다. '지역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고, 첫날부터 힘이 빠졌다. 결국 첫 사역지에서 제대로 선교도 못한 채 떠나야 했다. 너무 허탈했다. 선교의 문이 꼭 닫혀 버린 것 같았다. 매번 선교 때마다 "모든 걸 내려놓으라."는 말씀을 이번에도 실감할 수 있었다. 선교를 위한 우리의 준비와 계획이 무용지물이 된 현실 앞에 우리는 주님이 길을 열어 주셔야만 선교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다음 사역지로 이동하면서 팀원 전체가 간절히 주님께 매달렸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교의 문을 열어 주셨다. 서문 현지어로 복음을 전했음에도 그들은 "아멘."을 연신 외치며 복음을 열접하였다. 정말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은 따로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시간을 급처럼 여기며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했다. 이곳에서 복음을 열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 사람들이 모두 복음을 열접하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이다. 날씨는 무더웠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들은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였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남계촌(원사, 24교구 9지역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19교구 4지역팀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여 한 가정 한 가정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였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강하게 거부하는 가정도 있었다.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인준 집사)

마음은 광활한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너무 아팠다. 주님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 이 때에 오로지 우상만 숭배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보았다.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힘껏 복음을 전했다. 그 땅을 밟을 수가 없을 것 같다. (김경아 집사)

한 가정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축호전도를 할 때에는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고 영접기도를 따라 하면서 "아멘. 아멘."으로 신앙고백을 하게 하였습니다. (오영실 집사)

아픈 다리와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망설였

던 선교였다. 하지만 그것은 내 마음이 부족한 탓이었다. 수술로도 회복이 불가능한 다리로 인하여 절망하고 있을 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는 말씀이 떠올랐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뜻이 있으실 것이라 믿음으로 선교에 참여했다. (김남준 집사)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만나하며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선교 현장으로 달려가는 팀원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박종태 집사)

어느 집 대문 앞에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현지어로 인사를 건네자 15세 된 여학생이 대문을 열어 주며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다. 우상을 섬기는 그 가정에 대해 십자가 복음을 전하였고, 우리는 기도와 찬양을 한 뒤 그 집을 나왔다. (김정자 권사)

많은 영혼들을 만났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외쳤다.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 채 병상에 계신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다. (조옥자 집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9월 8일(월)~9월 16일(화)	11교구 5지역	김영록

현재 사역중인 선교팀 (4개 팀)

기 간	팀	팀 장
9월 1일(월)~9월 9일(화)	2교구 3지역	김대웅
9월 1일(월)~9월 9일(화)	15교구 4지역	문호식
9월 2일(화)~9월 10일(수)	9교구 2지역	강홍선
9월 2일(화)~9월 10일(수)	권사회 1팀	이경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년4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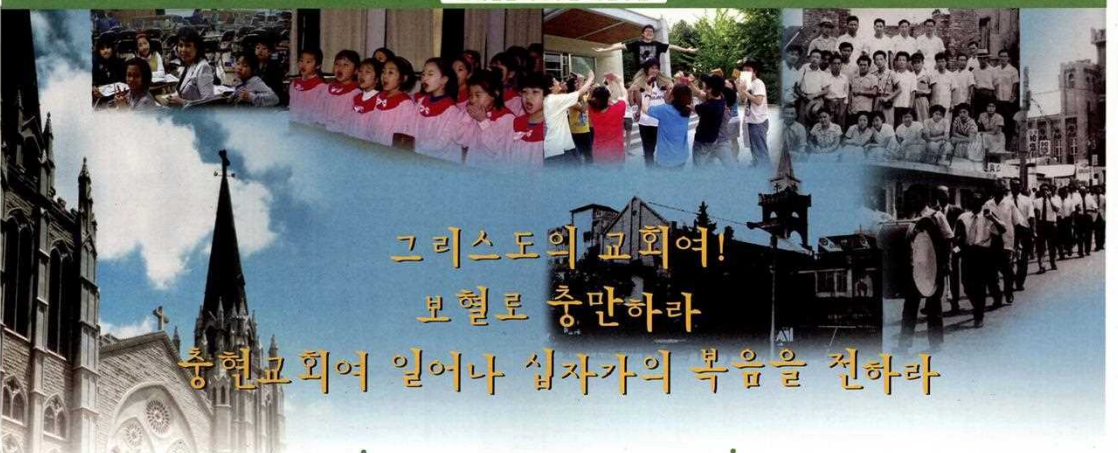
신선길(장로, 장년4부장)

우리 교회 장년부는 원래 장년1부(40대), 장년2부(50대), 장년3부(60대)의 3개 부서가 있었고, 이에 이어 소망부(70세 이상)가 있어서 장년3부에서 70세가 되면 바로 소망부로 옮겨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70세에 시무가 끝난 분들(은퇴 장로, 은퇴 안수집사, 은퇴 권사, 은퇴 서리집사)의 믿음과 봉사와 교육의 지속성을 위하여 장년3부와 소망부를 복음으로 잇는 장년4부를 새롭게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분들의 은퇴 후 5년 동안 복음으로 더욱 훈련받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장년4부는 70세부터 75세까지의 성도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깨닫고, 동일 연령대의 성도 간에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은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장년4부는 매주일 오후 3시 10분, 배다나홀에서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매주일 교구모임 후 찬양예배 전까지 있을 곳이 마땅하지 않던 성도님들에게 장년4부 집회를 통하여 복음을 깨닫게 하고, 성도 간에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살아있는 70명들의 세월들을 뒤돌아보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채 위의 것 보다는 땅의 것을 좇으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지략으로 절절히 인생을 살아가는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일 2:17)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장년4부에서 진리의 영으로 참 복음을 깨닫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깨닫고, 두 세계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이를 소망하며 살아가길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갈 2:20) 그렇다면 이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방패와 삼각이 되심을 믿기 때문이며, 또 우리에게 달려가야 할 뜻대(빌 3:14)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을 기도하며 묵상해 봅니다. 진정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 살아온 지난 시간들이 너무나 아쉽고 뼈에 사무치게 아프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지나가버린 세월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삶이 나의 것이었다면 이제 남은 생애는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장년4부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시몬성과 같은 주님의 몸 된 교회(마 16:18)를 세우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성전문지기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날마다 소망하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밟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만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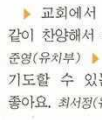
그리스도의 교회여!

보혈로 충만하라

충현교회여 일어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



▶ 교회 생일 축하해요. 예수님 우리 교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이종훈(유아부)



▶ 교회에서 친구들과 같이 찬양해서 좋아요. 김준영(유치부) ▶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좋아요. 최서경(유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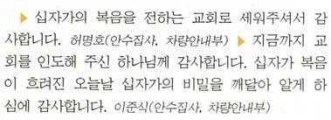
▶ 제가 죽을 때까지 교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없게 제가 전도할게요. 저는 남전도회 전도하는 날 아빠와 같이 전도를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한국갔으면 좋겠어요. 조예스터(유년부)



▶ 말씀 안에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기를 기도합니다. 양성민(중등2부) ▶ 반석 위에 교회가 우뚝 세워지길 바랍니다. 박동규(중등2부)



▶ 교회에서 찬가와 운동을 하고 성가대를 해서 재미있어요. 김기범(사랑부) ▶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어서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김순영(사랑부)



▶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병호(안수집사, 차량안내부) ▶ 지금까지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흐르진 오늘날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준식(안수집사, 차량안내부)

▶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언제나 죽이고 또 죽이고 싶은 내 자아를 죽이지 못하는 저에게 보혈의 십자가를 알게 해 준 교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효식(집사, 칼럼투어 찬양대)

▶ 처음 교회에 다닐 때는 혼자 다녔는데 지금은 믿음의 가족을 이루고 아내와 쌍둥이 딸 하느님과 주님이와 같이 다녀서 감사해요.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서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천상현(집사, 청년2부)



▶ 교회가 그리스도의 반석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권미라(대학부) ▶ 혼란스러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지금처럼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송이(대학부) ▶ 섞여져 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차병철(대학부)



▶ 어릴 때부터 말씀 속에서 생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늘 행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전혜선(집사, 청년1부) ▶ 진리의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미경(집사, 청년1부) ▶ 교회에서 조차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충현교회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임부부(집사, 청년1부)



▶ 예배다부에 큰 은혜를 부어 주시고 충현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문영(예배다부) ▶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생활하기를 기도합니다. 신성철(예배다부)

▶ 십자가의 복음이 마음껏 증거되는 교회!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교회! 자기를 부인하는 회개, 회개로 믿음의 순종이 있는 교회! 사랑합니다. 이선자(집사, 11교구)

▶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들을 교회에서 볼 수 있어서 감사해요. 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전보은(집사, 고등부 교사)



▶ 태어나면서부터 고등부까지 제 일생을 담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지금처럼 부흥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김소라(고등부) ▶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저도 많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겠습다. 주재영(고등부)



▶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땀 흘릴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백승환(집사, 식당봉사)



▶ 시몬성과 같은 교회로 반석되신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충만한 복음이 교회 위에 늘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더욱더 많이 듣고 싶어요. 함운자(권사, 4교구 간사)

▶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말씀을 들었을 때 "여기가 교회구나!"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저의 자녀들도 놀랄 정도로 저를 변화된 삶으로 이끈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배종복(집사, 22교구)

▶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피로써는 십자가만 높이 세워지고 증언되는 충현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대담이심을 알려주신 충현교회를 사랑합니다. 정인선(집사, 12교구)

▶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엡 1:23) 선하고 좋은 소식보다 자식이 부모를 해치고 또 때문에 사랑을 죽이는 악한 세대에 십자가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성도들이 주님과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김현경(성도, 교재연구)



새가족양육부 8월 수료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 지난 12월 강양근 군처를 지나다가 교회안내책자를 받았 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 잘 몰랐지만 나의 죄와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 사랑으로 죽음을 선택하신 분이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 내가 가진 소중한 사람이기도 나의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정인)

♥ 결혼 전에 중언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올해 초 이사를 오 게 되었는데 결혼 전 다녔던 교회가 그리워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애 되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희망이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나 를 건지시어 생명의 길,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하여 주시 는 능부입니다. 교회생활을 통해 경건의 예배를 드리고 베품과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운수)

♥ 올 3월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첫째의 소개로 나오게 되 었습니다. 주님은 항상 제 곁에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지체들과 주님 안에 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제 항상 나에게 베풀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기수)

♥ 어머니의 권유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것을 주신 예수님께 기도토록 죄를 사함 받고 은혜 를 받을 수 있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지칠 때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 내일이 가슴 벅찬 희망의 내일로 다 가옵니다. 이곳에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평 안을 얻으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최왕석)

♥ 남작친구의 부모님의 전도로 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지은 우리를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 오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 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각자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 리가 구원받고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부처적이 었던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타인을 사랑하고 배 려할 줄 알게,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한없이 작은 존 재인 나에 대해 반성하고, 크나큰 주님의 은혜를 온종일 고 받아가겠습니다. (시혜원)

♥ 말아버지께서 중언교회에 다니셔서 저도 어릴 적에 중언 교회에 다녔습니다. 학과때문에 동네교회를 다니다 이 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마 침을 말씀으로 하게 되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늘 예 수님이 저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주님보시기에 합 당한 생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송기영)

♥ 주님의 자녀 살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서 자주 전화해 주시고, 만나면 좋은 말씀으로 양육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김민영)

♥ 지그의 아들로 신앙생활 하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

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구세주이십 니다. 십자가는 죄악의 속박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증거입니다. 이제 저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삶의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삶 속에서 감사와 절제와 사랑을 갖게 되었습니다. (박대련)

♥ 어느 집사님의 전도로 중언교회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해주셨고 하늘에서 오신 구원자이 십니다. 나를 위해 죄를 대신 짚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 셴습니다. 저는 이제까지의 세상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는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주님만을 위해 살기로 했습 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슬라 담배를 끊을 수 있게 되었 습니다. (배석만)

♥ 원래 불교집안이었는데 전도를 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 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 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주님의 그 십자가는 온연과 참된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 고 기도드리라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생 활을 하도록 붙들었는데 각종 근심이 줄어들고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나를 구원 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김정수)

♥ 어느 간사님과 성도분의 권유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 님은 가난한 자, 부한 자, 병든 자, 강간한 자나 상관없 이 모든 이들을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 자이십니다. 교회생활을 하면서 항상 잡화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나를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데 로만 따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의 저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앞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노희식)

♥ 저는 예배 부모님의 인도로 중언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 었습니다. 시작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졌지만 두 번 세 번 다닐수록 어릴 적 성경학교에 다니던 때처럼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도 제 자신이 몇 번 다니다 말 줄 알았는데 벌써 6개월 이상을 지낸다고 마치고 되었고 수료까지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는 데에만 그 지기 않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저뿐만 아 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봉사하 며 살겠습니다. (김동주)

♥ 저는 대학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이 어오다가 취업 후 출장과 회식이 잦아지면서, 나 자신의 내담으로 주님을 잠시 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사는 게 다 그렇지.'라고 나 담하여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집사 님을 통해 점심 약속을 하게 되었는데 토하지 않게 수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통 안 잊고 있었던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 로 사하여 주신 것과 주님은 저를 잊지 않으시고 지켜주 셨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다 의지가 아닌 주님의 계획과 일지된 생활을 하겠습니다. (박재용)

십자가의 길 이단을 분별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 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골 12:2) 성 경에 기록된 이단표현은 크리스트도(삼후 2:1-12; 요 4:3, 2:18, 22; 요이 1:7; 유 1:4; 제 13:1-18), 거짓 그리스도(마 24:5, 24; 막 13:6, 21-22; 눅 21:8; 고후 11:4), 거짓선지자(마 24:11, 23-24; 막 13:2; 뱀후 2:1; 요일 4:1; 제 16:13), 거짓교사(골전 4:1-5; 뱀후 2:1, 3:3-4), 다른 복음(고후 11:4; 갈 1:6-7; 골 2:8), 다른 신 (골 2:0-3; 사 8:19), 다른 영(고후 11:14; 뱀 6:10-12; 요일 3:7, 4:6; 제 16:14), 당을 짓는 자(골 5:20; 유 1:18-19), 우상숭배(골 2:0-4; 갈 5:20; 골 3:5) 등이다. 이와 같은 표현만 보더라도 이단이 신자들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는지 잘 알 게 된다. 따라서 이단의 행동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이단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단의 행동특성

- ① 자신을 교조 또는 교주로 신격화 또는 특권자로 묘사하 거나 주장한다.
- ② 신자들의 가정을 파괴하거나 학생들에게 학문연구를 하 지 못하도록 제방하고 미혹 한다.
- ③ 종교적으로 사기행위, 금품갈취, 재산몰취를 감행 한다.
- ④ 자신들 주장의 반대 의견에 공개합박, 집단폭행, 인권관 압을 한다.
- ⑤ 신앙을 핑자하여 금품, 성폭행, 존으로 인권을 유린 한다.
- ⑥ 신앙공동체의 재산, 금품 등을 교주가 사유화 한다.
- ⑦ 가솔, 가정각파, 집단생활로 가정과 사회와 단절시킨다.
- ⑧ 무속적 기독교양을 강조하며, 초자연과 저주권을 행사 한다.
- ⑨ 자신들의 교회만 교회로 강조하여 구원받았다고 강조하 며 정통교회를 비판하고 침묵하며 신도들을 혼혹 한다.
- ⑩ 각종게시 및 인터넷 등을 주장, 신비주의 선전방향을 한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신자를 향한 이단의 공격은 어 저런 당연한 일이지도 모른다.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 시 않았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 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 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을위함"(마 7:13-14) 이단의 공격으로 신자의 걸음은 무거워질수도 있지만 그걸수록 보혈의 은혜는 더욱 충만을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를 붙들자. 삶의 초점을 예수님의 말씀에 두자. 이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강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뱀후 2:9) 아멘.

(편필곡)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638	박재욱	8	장년2부	박은숙(6)
1637	정지현	4	청년1부	한정민
1639	백경윤	6	중등2부	김 근(8)
1640	원승이	5	고등부	심금숙(5)
1641	윤종렬	24	초등부	정경희(24)
1642	육사나	25	외선부	마리나(25)
1643	조영일	24	장년3부	김영식(13)
1644	정성준	3	중등2부	
1645	정취호	6	고등부	홍달희(15)
1646	홍수업	11	장년2부	
1647	정명준	11	장년2부	

* 중언교회의 한 기록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부록 203년 새가족 등록일로 오시기 바랍니다.

